

첨부 - 내용

# 한국블록체인협회

## 2020 「디지털자산」 동향 보고서

2021. 1. 4

### 목 차

|                                   |    |
|-----------------------------------|----|
| 1. 개 요 .....                      | 1  |
| 2. 국내 · 외 규모 .....                | 1  |
| 3. 국내 · 외 국가별 CBDC 동향 .....       | 7  |
| 4. 국내 · 외 국가별 디지털자산 동향 .....      | 15 |
| 5. 국내 · 외 기업, 금융기관 및 투자자 동향 ..... | 23 |

본 보고서는 2020년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時事報道)'를 기초'로 하여  
정리한 '참고용' 자료임을 밝힙니다.

## 1 개 요

### □ 디지털자산의 확산

-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디지털자산이 발행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해외 송금 등 관련 신규 비즈니스 및 서비스가 출현함에 따라 디지털자산의 거래 영역이 빠르게 확대
- 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19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적인 분야에 파급적 변화 발생, 특히 경제적인 분야에서 비대면, 비접촉을 통한 언택트 거래 및 업무 등 디지털 시스템이 성행
- 세계 여러 나라들이 사상 초유의 실업과 실물경제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같은 경기 부양책을 내 놓는 상황에서 낡은 금융 시스템의 한계 봉착,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 요구
- 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국제 기준 이행 촉구에 따른 디지털자산의 금융산업 제도권화 움직임의 본격화

## 2 국내 · 외 규모

- (블록체인의 GDP성장 견인) 블록체인 기술이 2025년을 기점으로 전환점을 맞아 주요 산업 분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약 1조7600억달러(약 2023조원)에 해당하는 국내 총생산(GDP)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전 세계 GDP의 1.4% 해당)  
(출처 : PwC, 글로벌회계법인)

- 중국 GDP 성장에 4440억 달러 가치 제공, 미국은 4072억 달러, 일본은 731억 달러, 인도는 622억 달러 증가 예상

\* 출처 : 디지털투데이, 블록체인, 향후 10년간 세계 GDP 1조7600억 달러 증가 효과, 2020. 10. 14

- (세계 현황) 2019년 디지털자산 시장 규모는 1,940억 달러, 2018년의 1,323억 달러 대비 47% 상승

\* 출처 : 블록미디어 '[시장 전망] "2020년, 암호화폐 시장 최고치 기록할 것" -비트코이니스트, '2019년 암호화폐 시장 규모' (Coinmarketcap)', 2019. 12. 28

□ (세계 비트코인 거래 비율) 전세계 국가 통화별 비트코인 거래량의 70.99%를 미국 달러 차지, 19.7%를 일본엔화 차지, 전체 거래량의 90%를 미국과 일본이 독식

\* 출처 : 앞다퉈 비트코인 키우는데 한국은 '범죄자' 취급 - 한국경제(2020. 9. 20), 디지털자산 관련 통계사이트 코인힐스(2020. 9. 21)

□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일간 거래액 규모) 글로벌 디지털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의 일간 거래액 규모가 102조원을 넘김(2010년 10월 30일 코스피 시장 일간 거래액(11조4583억원)의 9배 규모) 글로벌 금융 기업들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수요가 점진적으로 확산하면서 생긴 현상

- 최근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이 소유한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 은행인 싱가포르개발은행(DBS)이 디지털자산 거래소 'DBS 디지털 익스체인지'를 만들고, 세계 최대 온라인 결제 회사 페이팔이 디지털자산 결제를 허용하는 등 디지털자산을 취급하는 금융 기업들이 증가
- 이에 비트코인 시세도 연중 최고점을 잇따라 경신, 디지털자산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2020년 10월 31일 비트코인 시세는 1560만원으로 한달 전 대비 약 25%가량 상승
- 2020년 10월 31일 디지털자산 통계사이트 코인마켓캡닷컴에 따르면 이날 하루동안 거래된 디지털자산의 총액은 102조2457억원을 기록, 2017년 디지털자산 대란 당시 일 거래액 최고치(52조원)를 뛰어 넘음
- 2020년 10월 31일 기준, 바이낸스와 후오비에서 하루 동안 거래된 디지털 자산 거래액은 22조 328억원(두 거래소에서 코스피 시장 2배 규모의 디지털 자산 거래가 매일 발생), 반면 같은날 빗썸에서는 2620억원, 업비트에서는 2365억원어치의 디지털자산이 거래(바이낸스, 후오비 거래액과 비교해보면 2% 수준에 불과)

\* 빗썸과 업비트가 2017년 당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거래세만 걷어도 하루에 550억원의 세금 확보, 국가 재정 기여(단순 비교를 위해 증권시장과 동일하게 0.25%의 거래세를 걷는 것으로 가정)

\* 디지털자산 시장은 24시간 365일 열려있기 때문에 주말과 공휴일에 관계 없이 매일 거래세를 제공, 디지털자산 거래량이 현 수준을 유지만 해주더라도 1년에 약 20조750억원(550억원\*365일)의 세금확보 가능, 단 두 개의 거래소로부터 연간 20조원 규모의 국가 재정 확보가 가능)

\* 출처 : '年 20조 세금' 걷어찬 정부...가상화폐 거래액, 코스피의 9배 [김산하의 불개미리포트] - 한국경제(2020. 11. 1)

- **(디지털자산 이용자 1억명 돌파)**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대체금융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2020년 3분기 기준, 신원이 확인된 지갑을 중심으로 전세계 디지털자산 거래소 계좌 데이터를 분석,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 이용자가 1억명을 돌파 했다고 밝힘, 자산 투자와 이용률면에서 어느 투자 자산 못지 않은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

| 구 분          | 2016년 | 2018년   | 2020년    | 비 고 |
|--------------|-------|---------|----------|-----|
| 지갑개수(개)      | 4500만 | 1억3900만 | 1억9100만개 |     |
| 암호화폐 사용자수(명) | 500만  | 3,500만  | 1억 100만  |     |

\* 출처 : 케임브리지 “인구 1억명이 암호화폐 사용” - 조인드(2020. 9. 25), 케임브리지 대체금융센터 연구팀 데이터 분석 자료(2020. 9. 21), 암호화폐 사용자 수 : 총 지갑 개수 중 신원이 확인된 활성 유저 중심 분석, 지갑개수 : 자체 호스팅 된 지갑을 포함하지 않는 수치

-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에 의한 지역별 유저 활성화 수치도 제시, 그 결과 북미와 유럽 지역의 활성화 지수는 중앙값 기준으로 전체 사용자 중 40%가 활성 유저, 반면 아태지역은 16%, 중남미는 10%를 기록, 제3국에서 암호화폐가 많이 사용된다는 인식과는 조금 다른 결과

\* 케임브리지 측은 “이번 분석은 신원이 검증된 계정을 토대로 이뤄졌다. 전세계 암호화폐 사용자 수를 대략적으로 나타내는 믿을만한 지표다.”라고 이야기함

- 해당 연구 결과는 대형 서비스 제공업체들을 중심 조사(소형 업체 및 P2P 거래 등의 잡히기 어려운 사용자는 집계되지 못했을 가능성 높음), 제3국의 경우 대형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한 암호화폐 사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짐

- **(리플 연례보고서)**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른 현재의 거시경제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수용은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 공개(2020. 10. 16)

- 리플은 전날 핀테크 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역할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2020년 블록체인 결제 산업 보고서를 발간,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초기 블록체인 수용자들이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힘

- 보고서는 세 가지 주요 동향에 초점, ①블록체인 기술이 개념 증명의 기능에서 결제 솔루션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 ②블록체인 또는 분산원장 기술(DLT)을 이용해 결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 자산을 고려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빠르게 증가<이러한 분위기가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은 물론 심지어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 등 광범위한 디지털 자산들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 ③블록체인 산업의 혁신적인 기업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와중에서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상품 및 서비스의 확대, 결제 기술의 혁신 등에 힘입어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
- 더불어 코로나19 대유행이 세계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야기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초기 단계에서 성숙기로 발전하고 있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이 세계 결제 산업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결론

□ **(JP모건체이스의 보고서)** 그레이스케일(암호화폐 헤지펀드)의 비트코인 투자신탁(GBTC)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금 ETF<상장지수 펀드 (Exchange Traded Fund)는 인덱스펀드(Index Fund, 특정한 주가 지수에 연계 해 수익을 올리는 것, 특정한 주식의 종목을 한데 모아 놓은 세트)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 투자 수준을 추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인식이 기관 투자 부문까지 확산되면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2020. 11. 8)

- 미국 암호화폐 헤지펀드 그레이스케일이 운용하는 비트코인 신탁이 '금 상장지수펀드(ETF)'보다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고 보도, 은행은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밀레니얼 세대뿐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이 이같은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고 진단
- 보고서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수요가 금 ETF에 대한 수요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같은 흐름은 금에 투자해왔던 패밀리오피스 등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금의 대안으로 보고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줌
- 그레이스케일에 유입된 자금은 2020년 3분기만 10억 달러 초과, 2020년에 들어서는 총 30억 달러가 들어왔으며, 전체 운용자산 규모는 전월 대비 5억 달러 증가한 91억 달러에 달함, 2020년 9월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 신탁 상품보다 좋은 성적을 낸 미국 ETF 상품은 전체의 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

- 그레이스케일에 유입된 자금은 2020년 3분기만 10억 달러 초과, 2020년에 들어서는 총 30억 달러가 들어왔으며, 전체 운용자산 규모는 전월 대비 5억 달러 증가한 91억 달러에 달함, 2020년 9월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 신탁 상품보다 좋은 성적을 낸 미국 ETF 상품은 전체의 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

\* JP모건은 "비트코인 시장 규모가 10배가량 증가해 현재의 금 투자 시장을 필적하게 되고 대안화폐로서 금과의 경쟁을 더욱 심화한다면, 비트코인의 장기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전망, 한편 "이번 주 가격 폭등으로 인해 비트코인은 과매도 상태"라면서 "이는 매각 흐름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임

\* 출처 : JP모건 보고서 "기관 투자자들, 비트코인 '금' 대안으로 인식", 코인리더스, 2020. 11. 9

## □ 암호화폐 산업의 총 운영 자산 규모 증가

- (코인셰어스(CoinShares, 암호화폐 자산운용사)가 발표한 디지털자산 위클리 리포트) 최근 일주일 동안 기관투자자들이 약 4억2900만달러 규모의 자산을 암호화폐 펀드 및 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암호화폐 산업 내 총 운영자산 규모가 150억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2019년보다 약 6배 가량 성장), 이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난 2019년 말 25억7000만 대비 큰 폭으로 성장(2020. 12. 8)
- (그레이스케일(글로벌 최대 암호화폐 투자펀드) 트위터) 총 운용자산 규모는 127억달러 기록(2020. 12. 7)
- (암호화폐 미디어 더블록) 2020년 암호화폐 옵션 거래량의 성장속도는 선물 거래량의 5.4배를 기록했다. 올 1월부터 11월 말까지 ETH 옵션의 거래량은 2800% 성장했으며, 암호화폐 옵션 거래소 데리비트(Deribit)가 전체 거래량의 90%이상을 차지한 있는 것으로 나타남(2020. 12. 7)

\* 출처 : 코인리더스, '코인셰어스 "암호화폐 총 운영자산 150억달러' 육박...역대 최고 수준', 2020. 12. 10

## □ 2020년 가상자산 운용 규모 2019년 대비 6배(2020. 12. 21)

- 가상화폐 펀드와 상품에 유입된 투자금이 56억달러(약 6조2076억원)로 지난해보다 600% 이상 증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가상화폐 자산운용사인 코인셰어스의 자료를 인용 보도

- 이에 따르면 비트코인 등이 대체 투자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투자 유입액이 늘고 가격도 급등하면서 가상화폐 운용 자산규모가 작년말 25억7000만 달러에서 최근 약 190억달러로 급증, 특히 세계 최대 가상화폐 펀드인 그레이스케일의 운용 자산 규모는 153억달러로, 2020년 약 50억달러가 유입됐다고 로이터통신 보도

\* 출처 : 디지털투데이, 올해 가상자산 운용 규모 전년 대비 6배, 2020. 12. 22

## □ (국내 현황) 총 거래건수 15억 5684만건, 거래금액 2161조 1063억원

| 구 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5월  | 계           |
|---------|-------|---------|-----------|-----------|-----------|-----------|-------------|
| 거래수(건)  | 75만   | 154만    | 3억698만    | 5억2447만   | 4억882만    | 3억1428만   | 15억 5684만   |
| 거래금액(원) | 5813억 | 1조6573억 | 619조6866억 | 936조3681억 | 487조9049억 | 114조9081억 | 2161조 1063억 |

\* 출처 : 서울신문, ‘[단독] 암호화폐 5년간 2100조 거래… 눈 뜨고 세금 수조원 놓쳤다’, 2020. 7. 9, 2015년 ~ 2020년 5월까지, 국내 4대 디지털자산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기준, 금융위원회 국회 제출 자료



### 3 국내 · 외 국가별 CBDC 동향

#### □ 각국 CBDC 추진 현황

| 국 가              | 개발 단계  | 발행 목적                                    | 비 고   |
|------------------|--|--|---|
| 미 국              | 페이스북 ‘디엠’과 코로나19 사태로 디지털화폐에 관심 상승, 미 연준 ‘가상 디지털 화폐’ 실험 중 | 달러화 위상 제고                                |   |
| 중 국              | 중국인민은행 주도, ‘디지털 위안화’ 개발 시범 운영, 올해 말 부분 사용 예정             | 자금세탁 방지<br>위안화 위상 제고                     |   |
| 일 본              | 2017년부터 유럽중앙은행과 공동연구 4단계 테스트 완료(사생활 보호-감시 기능 균형)         | 최신 기술 적용 검토<br>엔화 위상 제고                  |   |
| 영 국              | 모델 수립  | 복원력·혁신성 등 제고<br>파운드 위상 제고                |   |
| 프랑스              | 개념 검증 준비   | 유로화 위상 제고                                |   |
| 스웨덴              | 스웨덴 중앙은행(라스뱅크) 주도 ‘e-크로나’ 시범 운영 중, 내년 2월까지 모의실험          | 현금 사용 감소 대비 등                            |   |
| 스위스              | 개념 검증 준비 중   | 발행 필요성 제고                                | 국제결제은행(BIS)과 중앙디지털화폐(CBDC) 테스트 계획 발표(10/26) |
| 프랑스              | 개념 검증 준비 중   | 유로화 위상 제고                                |   |
| 노르웨이             | 요구사항 분석  | 현금 사용 감소 대비 등                            |   |
| 캐나다,<br>싱가포르, 유럽 | 개념 검증  | 최신 기술 적용 검토                              |   |
| 태국, 홍콩           | 개념 검증  | 국가 간 외환 거래                               |   |
| 동카리브             | 개념 검증  | 금융 포용                                    |   |
| 바하마              | 운영   | 금융 포용·자금 세탁 방지                           | 2020년 10월 21일<br>‘샌드달러’ 공식 발행<br>국가 전체 사용   |
| 캄보디아             | 운영   | 이주 노동자에게 더 나은 송금 방식 제공, 현지 화폐 ‘리엘’ 사용 확대 | 2020년 10월 28일<br>‘바콩’ 공식 가동                 |

\* 출처 : 서울경제, 「‘연준 “디지털화폐 시험운영…발행 준비는 아직”」, 한국은행 자료, 2020. 8. 14, 경향신문, ‘각국 중앙은행들 ‘민간 기업 경제’ 디지털 화폐 도입 속도 낸다, 한국은행 자료, 2020. 8. 9, 블록체인프레스, ‘바하마 중앙은행, 10월 4만8000弗 상당 CBDC 발행한다’, 2020. 9. 17



## □ 국 외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021년 중 디지털자산에 대한 과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결정(글로벌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현황을 고려하고, 회원국 세무당국이 현지에서 디지털자산에 대한 취급 방침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발표), 디지털자산 과세 가이드라인은 디지털자산의 활동적이고, 고도로 이동성이 있는 특성을 반영, 디지털자산 지갑 서비스의 기술적 문제 및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과세 여부도 가이드라인에 포함(2020. 10. 22)
- (주요 20개국(G20),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결제은행(BIS), 세계은행(WB))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에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를 사용할 수 있는 발행 및 규제에 대한 공식 표준을 2022년까지 수립할 예정(2020. 10. 13)
- (중국) 중국 인민은행은 2014년 세계 최초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팀을 구성해 연구해왔으며, 2020년 5월부터 디지털 위안화 실증 시험,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전면 도입할 계획
  - ‘디지털위안화’ 공개 실험, 광둥성 선전시는 공식 웨이신(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공동으로 시민들에게 법정 디지털화폐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추첨 5만명 선정, 각각 200위안씩 총 1,000만위안(약 17억원)이 분배>(2020. 10. 11)
  - 종이나 금속 등 실물이 나닌 디지털 코드도 법정화폐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인민은행은 실물 형식이 아닌 디지털 형식의 위안화도 법정 화폐로 인정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인민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개정안에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위험 통제 차원에서 어떤 기업이나 개인도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2020. 11. 2)
  - 중국에서 시범운영 중인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의 결제액이 현재까지 20억 위안(한화 약 3394억 원)을 초과<중국 중앙은행은 2020년 4월부터 8월 사이 1억6200만 달러(약 1838억 원) 규모의 결제가 이뤄졌다고 발표, 2개월 사이에 결제 금액이 두 배 가량 오른 셈>(2020. 11. 2)

\* 중국 중앙은행의 이강 총재는 홍콩 핀테크워크 컨퍼런스에서 “지금까지 디지털 위안화 시범 프로그램이 400만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했다”며 “총 20억 위안 이상의 결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서 중국은 지난 4월부터 심천, 청두, 쑤저우, 숭안 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위안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며 “4개 도시에서 9개 도시로 확장해 출시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인민은행이 쑤저우에서도 디지털 위안화 테스트를 진행, 쑤저우 상청구(相城区)에 일부 공무원의 보너스를 디지털 위안화로 지급하는 등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업이 많이 진행됐으며, 이번 테스트는 쑤저우 시민들에게 홍바오(红包) 형식의 전자지갑 10만개를 지급해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2020. 11. 30)
- 위안화와 별도의 법정 화폐가 있는 특별행정구 홍콩에서도 앞으로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이 널리 쓰일 전망, 홍콩금융관리국(HKMA)를 이끄는 위웨이원(余偉文) 총재는 최근 발표한 '금융기술의 새 추세, 역외 지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HKMA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함께 디지털 위안의 역외 지불 사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공개(2020. 12. 8)
- o (미국) 중국의 디지털 화폐를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던 미국은 중국의 디지털 화폐 주도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입장으로 변화, CBDC 구축 실험 시행
  -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은행이 여러 지역의 연방은행(Fed·연준)과 함께 디지털화폐(CBDC)를 연구 중(2020. 9. 23)
  - 미 연준 연구진이 CBDC에 대한 문헌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디지털화폐 도입으로 발생할 파급력을 언급, 연구진은 CBDC가 시중은행에 미치는 영향과 통화 및 재정정책에 가져다주는 파급력을 위주로 심층 조사를 진행(CBDC는 시중은행의 주요 자금과 대체 가능성이 있으며, 통화 및 재정책에도 광범위한 영향 미칠 수 있음을 설명)(2020. 11. 9)
- o (캐나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각국 중앙은행에게 자체 디지털 화폐를 준비 할 것을 주문, 규제 당국이 페이스북 '리브라' 토큰을 차단할 경우 각국 중앙은행들은 자체 중앙은행 발행 암호화폐(CBDC) 발행을 착수하고, 발행 암호화폐(CBDC)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의 해결책이 될 것으로 주목<캐나다 중앙은행(BoC) 티모시 레인 부총재>(2020. 10. 15)

## ○ 유럽

- 유럽중앙은행(ECB)는 유럽의 18개 중앙은행 전문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크리스틴 리가르트’ 유럽중앙은행 총재 : 2020. 9. 10, 몇 주 내 CBDC 발행 여부 연구결과 및 유로화 시스템의 디지털 도입 여부 등 발표 예정, 디지털 유로는 전통화폐의 보완 수단이며 대체제는 아닐 것이라고 밝힘(2020. 9. 22)
- 유럽중앙은행은 ‘디지털유로 보고서(Report on a digital euro)’에서 2021년 중순까지 CBDC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발행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힘(2020. 10. 2)

- (영국) 영국 재무부가 브렉시트(Brexit) 이후 유럽의 금융 허브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혁신 노력의 핵심으로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를 전면에 내세움, 영국 재무부 리시 수낙 장관이 발표한 성명에서 새로운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지불 수단들의 높은 규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현금에 대한 보완책으로 CBDC 발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재무부와 영국 중앙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협력에 대해 기대감 표시(2020. 11. 10)

- (프랑스) 2020년 5월, 4000만유로(한화 55억원) 상당의 채권을 토큰화해 발행, 9월 중앙은행의 CBDC시업 사업에 참여하는 대형 은행 ‘소시에테 제네랄’은 ‘테조스’ (디지털자산)를 정식 사업 파트너로 선정, 디지털 유로 개발에 ‘테조스’ 블록체인을 활용할 예정

## ○ 스웨덴

- 스웨덴 중앙은행인 ‘리크스뱅크’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 화폐인 e-크로나 시범 운영 시작(2020. 2), 상세 보고서를 공개하고 민간서비스와 제휴를 통해 CBDC 공급을 관리하는 방안 등 검토(2020. 6)
- 스웨덴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대한 정식 심사 시작, 페 볼룬드(Per Bolund) 금융시장부 장관은 이날 e-크로나 발행을 포함한 디지털 화폐 도입을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발표(2020. 12. 11)

- (스위스) 스위스중앙은행(SNB)과 국제결제은행(BIS)이 올해 안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테스트를 계획(2020. 10. 26)

- (네덜란드) 비트코인, 페이스북 리브라 등 디지털 결제수단과 현금을 비교하고 CBDC 설계의 핵심 사항까지 언급한 45쪽 분량의 보고서 발표(2020. 4)
- (이탈리아) 이탈리아은행협회(ABI)는 디지털 유로의 기술적 타당성을 조사하고, 프로그래밍 가능성(programmability)을 통해 실현한 새로운 부가가치 서비스를 검토하기 위한 디지털유로화 관련 테스트를 시작, ABI는 이번 실험을 통해 이탈리아 은행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협약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는 은행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한다고 설명(2020. 12. 22)
- (러시아) 러시아 중앙은행이 ‘디지털루블화’ 발행 가능성 언급, 구체적인 발행 여부에 대해 밝히진 않았지만, 디지털 루블화 발행 가능성을 놓고 공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2020. 10. 13)
- (사우디·UAE)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가 공동으로 개발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출시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소식, CBDC 공동 실험을 진행한 결과 분산원장기술(DLT)이 국가 간 거래를 개선하고 금융 프라이버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결론(공동 실험 프로젝트 이름은 ‘아버(Aber)’로 아랍어로 ‘경계를 넘는다’는 뜻)(2020. 12. 1)

## ○ 일본

- 디지털 화폐에 소극적이던 일본은행도 실증·시범 운영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2020. 7)
- 일본의 집권여당인 자민당 산하 ‘국제질서유지전략본부’가 공식 채널을 통해 일본 경제 안전 보장에 관한 논의 내용을 담은 ‘중간 보고서’를 발표(해당 보고서를 통해 자민당은 경제 안보 일괄 추진법의 제정을 촉구할 전망), ‘산업 데이터 활용 촉진법’ 제정으로 유럽, 미국과 협력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의 조기 도입과 유통을 도모하는 것도 검토(2020. 9. 28)

\* 해당 보고서에서 일본 자민당 측은 “미·중 갈등 격화를 대비한 국제 질서 변동이 전망되는 만큼 일본도 경제 안보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말함

- 일본은행은 2020년 10월 9일, CBDC 발행 관련 보고서를 공개한 뒤 2021년 이른 시점에 ‘디지털엔화’ 실증실험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현 시점에서 CBDC 발행 계획은 없으나 디지털화폐 진전 상황에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겠다고 강조)(2020. 10. 11)

- **(태국-홍콩)**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업체 컨센시스(ConsenSys)가 홍콩통화청(HKMA)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프로젝트 계약을 수주했다고 공식 사이트를 통해 발표, 해당 계약은 '인타논-라이온록(Intanon-LionRock)'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인 홍콩-태국 간 결제 네트워크 작업이 포함(인타논은 태국 중앙은행, 라이온록은 홍콩통화청의 CBDC 프로젝트, 양국은 2019년 5월부터 CBDC 공동 연구를 위한 협력에 들어갔으며, 2020년 1월 프로젝트 1단계 관련 결과를 발표), 이번 단계에서 양국은 대리은행 네트워크를 거치지 않는 은행 간 직접 결제를 목표, 태국 바트화(THB)-홍콩달러(HKD) 간 채널을 구축해 양국 CBDC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개념 증명을 실시하고 비용, 투명성, 법률 관련 사안들도 다룰 예정(2020. 9. 25)
- **(필리핀)** 자국 내 금융 서비스에 가상화폐 도입 추진 중, 필리핀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연구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토큰을 자국 내 금융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고 큰 지출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써 판단(2020. 9. 21)
- **(캄보디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인 '바콩'이 공식 가동에 들어갔다고 발표, 바콩은 현지 법정화폐 리엘(riel)과 달러를 지원(2020. 10. 28)
- **(호주)** 호주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CBDC) 개발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 프로젝트에는 커먼웰스 은행, 내셔널 호주 은행 등 주요 은행과 소프트웨어 개발사 등이 참여(2020. 11. 2)
- **(브라질)** 브라질 중앙은행이 CBDC 발행 연구를 위한 실무그룹 조직(2020. 7월말), 2022년 안에 중앙은행 발행 CBDC 발행 목표 발표
- **(바하마)** 바하마에서 중앙은행 발행 CBDC가 유통 전망, 바하마 중앙은행은 내달 '샌드 달러'를 발행할 계획(샌드 달러 : 바하마 달러에 가치가 1대 1로 연동, 바하마는 자국 달러 가치를 미국 달러와 동등하게 적용), CBDC를 실제 발행에 나선 것은 바하마가 세계 최초 <약 4만8000 달러 상당의 CBDC가 모바일 월렛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통용>, 수요에 따라 '샌드 달러'를 더 많이 발행하면서 화폐 공급 차원의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바하마 달러 지폐는 유통하지 않을 것(2020. 10. 20)
-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중앙은행(Eesti Pank)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디지털 화폐(CBDC) 인프라 구축 방안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발표(2020. 10. 2)



## □ 국 내

- (한국) 한국은행은 CBDC 연구·개발을 주력 과제로 꼽고 관련 법률 자문단까지 꾸린데 이어 2020년 8월 30일 내년 파일럿 테스트를 염두에 둔 시범시스템 구축을 위해 외부컨설팅 입찰 공모 시작(소액결제용 디지털화폐 개발에 주안점)
- 한국은행이 발행과 환수를 맡고, 유통은 민간이 담당하는 실제 현금 유통 방식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시험) 체계가 가동(한국은행 2021년 한 해 동안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시험 계획)(2020. 10. 7)
- 신한은행이 국내 시중은행 중 최초로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대비한 실험에 착수, 신한은행은 LG CNS와 개념검증(POC) 차원에서 블록체인의 기반 ‘디지털화폐 플랫폼’을 시범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 모든 시스템이 은행계좌 기반에서 지갑기반으로 바뀐다는 점이 큰 차이점 (2020. 10. 28)

## □ 해외 전문가 전망

- (기타 고포나스 국제통화기금 IMF 수석) 수십 년간 국제통화시스템을 지배하는 달러를 CBDC 등의 디지털 화폐가 대체하기 어렵다고 예상
- (제프리 프랭클 하버드 대학 교수)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기축통화의 근본 요소인 자본시장 개방, 위안화 신뢰도 제고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언급
- (마틴 초르젠프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위안화를 디지털화 한 수준으로 달러의 지위를 위협할 수 없을 것이며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과 같이 중국 CBDC도 중국 내에서 주로 사용될 것으로 관측

\* 출처 : 위 기타 고포나스 국제통화기금 IMF수석, 제프리 프랭클 하버드 대학 교수, 마틴 초르젠프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망, 뉴시스, [블록체인 오디세이] 新 통화전쟁 점화...디지털 화폐 어디까지 왔나, 2020. 6. 21

- (닥터뚝 루비니 교수) 대표적인 디지털자산 비관론자로 알려진 '닥터 뚝'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 긍정론을 펼침, 비트코인 등 민간 디지털자산(암호화폐)과 달리 CBDC가 '돈의 미래'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힘<자산 가치 평가에 대한 의견마저 엇갈리는

현재 디지털자산과 달리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로 광범위하고 공식적인 화폐 유통이 보장되기 때문이라는 설명, 디지털 자산에서 '탈중앙화' 요소를 평가절하해 왔으며, 민간에 의한 디지털자산 확산이 대부분 '사기'에 가깝다는 의견, 최근 유행하는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인 디파이(DeFi)마저도 '공수표' 라면서 강력히 비판>

\* 루비니 교수는 "비트코인은 통화가 아니다. 그러나 CBDC는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자 교환 수단이 될 수 있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는 유연한 결제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면서 "중국 디지털 위안화와 스웨덴 e크로나, 유럽의 디지털 유로화 발행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 "가까운 장래에 CBDC가 주요 금융 서비스 및 현재 디지털자산을 대체할 수 있다"면서 "CBDC 기반 혁명이 3년 안에 다가올 것"이라고 주장

## □ 국내 전문가 전망

-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현금과 DCEP(디지털 위안화)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할때 자산 운영이 가능하며 현 상황에서는 DCEP을 사용할 이익 부존재, 화폐로서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본질적으로 탈중앙화 선행 필요

\* 출처 : 'CBDC 온라인 포럼' 발표(한국금융ICT융합학회), 2020. 9. 9



## 4 국내 · 외 국가별 디지털자산 동향

### □ 국 외

#### ○ 미국

- 미국 은행을 감독하는 재무부 산하 통화감독청(OCC), 사전 입법예고(ANPR) 제도를 통해 은행 등 금융권의 디지털자산 및 핀테크 톨 사용 방법에 대한 민간 의견 수집 중(2020. 6), 은행들의 디지털자산 수탁서비스 허용 및 규제 정비(뱅크오프아메리카(BoA), 골드만삭스, 씨티은행, 웰스파고 등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이 합법적으로 디지털자산으로 주식 · 채권 등의 금융자산처럼 수탁 가능)(2020. 7)
- 미국 금융당국(통화감독청, OCC)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대응 방침 마련(최초의 지침), 시중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도록 허용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에 시동(2020. 9. 21)
- 미국 국세청(IRS) 디지털자산 거래 추적을 위한 솔루션 구축 투자 결정(25만달러, 2020. 9. 9), ‘2020년 세금 신고 1040문서’를 제출하는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0년에 암호화폐 거래를 했는지 질문 할 계획(암호화폐 판매, 송부, 수취, 교환 혹은 취득여부 내용 포함)(2020. 9. 25), 초안 발표(미국의 납세자가 올 한 해 동안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지갑 간 이체를 했을 경우 이를 암호화폐 관련 거래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됨)(2020. 10. 25)
- 미국은행감독협의회(CSBS)가 단일 심사를 통해 디지털자산 기업들이 미국 전역에서 사업할 수 있는 라이선스 규정 내놓을 계획 발표(2020. 9. 15)
- 미 재무부 재정서비스국(BFS)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혁신 프로젝트 ‘보조금 지급을 위한 블록체인’ 및 ‘디지털종단간효율성(DEEE)’실시, 6개월 간 진행되는 해당 프로젝트는 블록체인을 통한 보조금 토큰화 및 이용 개선 연구에 중점, 관련 기능적 · 법적 사안들도 검토(2020. 9. 21)
- 미국 하원이 암호화폐 거래소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미국 텍사스주 마이클 코나웨이 하원의원, ‘2020년 디지털 상품거래소법’ 제출), 국가차원에서 디지털 상품 거래소에 대한 정의 마련, 디지털 상품 거래소만의 규제를 제정하고 이를 선물거래위원회(CFTC)에서 감독하게 하는 내용(디지털 화폐 자산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상품거래소법과 유사한 규제틀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2020. 9. 24)

-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규제조치 의견서(no-action letter, 기업이 특정 행위를 하기 전 법규에 위반되는지 알 수 있도록 사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를 발표하면서 디지털 자산 증권(분산원장 시스템을 통해 보유, 거래되는 증권)을 거래 촉진을 위해 대체거래시스템(ATS)을 이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길 개방(2020. 9. 25)

\* 브라이언 브룩스(Brian Brooks) 미국 통화감독청(OCC)장 대행은 트위터를 통해 "SEC는 등록된 거래소에서 거래될 크립토 증권형 토큰을 승인하는 비규제조치 의견서를 발표했다. 신흥 자산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좋은 조치"라고 평했다.

- 미국 디지털자산 거래소 ‘크라켄’이 최근 자회사 ‘크라켄 파이낸셜’이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은행업 면허를 받았다고 공식 발표, 특수목적예금기관(Special Purpose Depository Institution, SPDI)으로 인가(2020. 9. 20), 이어 아반티 파이낸셜 그룹도 와이오밍주에서 SPDI를 신청, '아반티은행&트러스트'라는 이름으로 디지털자산 은행 운영 계획, 이르면 다음 달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2020. 9. 27)
- 아반티 파이낸셜 그룹이 설립한 ‘아반티 은행’ (2020년 초부터 미국 내 합법적 암호화폐 은행 설립 추진)이 미국 와이오밍주로부터 암호화폐 은행 설립 인가, 이로써 아반티는 지난 9월 최초로 은행 설립 인가를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에 이어 두 번째 미국 암호화폐 은행으로 선정, 아반티 은행의 정식 서비스는 2021년 초로 예정(2020. 10. 28)
- 스테이블코인 PAX(팍소스 스탠다드)의 발행사로 알려져있는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 팍소스가 OCC(미국 통화감독국)에 은행 설립 승인을 신청, 팍소스는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승인 신청(이와 달리 크라켄, 아반티는 와이오밍주로 한정하여 서비스 진행)(2020. 12. 8)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의 블록체인·디지털자산 분야의 빠른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는 정부의 보수적 규제가 미국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만들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2020. 10. 13)

\* 히스 타버트(Heath Tarbert) 위원장은 "혁신은 민간영역에서 나오는 것이며, 정부의 역할은 스스로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혁신을 감독하는 것"이라고 말함

- 미국 은행들이 최근 암호화폐 수탁(custody) 서비스 제공 권한을 부여받으면서 암호화폐 지원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기업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 미국 은행이 통화감독청으로부터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권한을 허용받은 후 고객에게 암호화 자산을 지원할 방법을 강구(2020. 10. 31)

\* 브라이언 브룩스 통화감독청(OCC) 청장 대행은 "국법은행들이 앵커리지, 코인베이스 등 여러 암호화폐 전문 수탁업체들에 외부 수탁업체로 협력할 의향이 있는지 문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이 합법적으로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전문 업체와의 제휴 또는 인수를 통해 관련 역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

- 미국 하원의 맥신 워터스 금융위원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자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통화감독청(OCC)이 펼치고 있는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관련 지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권고, OCC가 최근 허용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 관련 자금 취급 지침과 디지털자산 수탁 서비스에 대해 반대 입장 피력(2020. 12. 6)
-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개인 지갑(unhosted wallet)을 이용한 거래이더라도 현금화 가능 가상화폐(CVC)나 디지털 자산의 거래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은행·거래소(MSB)가 관련 기록을 보관·제출하도록 하는 규정 개정안을 공개, 지금까지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정에 따라 거래소가 발급한 지갑을 통한 거래만 규제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 지갑 거래에 대해서도 규제\*가 적용, 단속반은 개정안에 대해 오는 2021년 1월 4일까지 15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 (2020. 12. 22)
  - \* 은행·거래소는 개인 지갑을 이용한 거래액이 3천 달러를 넘으면 거래 당사자들의 이름과 주소·화폐 종류·거래액·거래시간 등을 보관, 또한 거래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면 거래 15일 이내에 이를 단속반에 제출
  - \*\* 의견수렴 기간을 일반적인 60일에서 15일로 단축한 배경에 대해 단속반은 가상화폐가 국제 테러자금 조달과 무기 확산·제재 회피·다국적 자금세탁·해킹 등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미 당국이 발견했기 때문
-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세계 3대 가상화폐로 꼽히는 리플(XRP)의 출범을 주도한 리플 랩스와 이 회사 창업자 등을 상대로 투자자 보호 규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리플 판매로 얻는 이익을 벌금과 함께 반환 요청), SEC는 가상화폐 리플은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면서 피고들은 그동안 13억8천만 달러어치의 리플을 판매해왔다고 주장, 이번 소송에서 핵심 쟁점은 가상 화폐인 리플이 증권으로 판정될지 여부(2020. 12. 22)

- (중국) 디지털 화폐 발행을 장려하고 블록체인 기술 육성 위한 ‘암호법’ 시행(2020. 1. 1), 2019년 10월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서 마련, 해외 민간 암호화폐는 차단하고 중국 자체 암호화폐를 키우겠다는 의도, 국가 주도 디지털화폐 발행을 위한 포석

## ○ 홍콩

-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대해 강한 규제를 가하는 대신, 이들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시장을 정화하겠다는 취지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이하 SFC)는 ‘디지털자산 거래플랫폼에 대한 규제방침서’ 및 ‘디지털자산 선물계약 관련 주의사항’을 발표(2019. 11. 6)
-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규제를 허가제로 변경, (홍콩에서 운영되는 가상화폐거래소는 모두 SFC의 승인 필요, 홍콩 당국이 지난해 가상화폐거래소 규제를 도입하면서 적용 대상을 비트코인 같은 토큰(token)이 아니라 증권이나 선물 자산으로 한정하자 이를 악용해 일부 가상화폐거래소가 규제를 피하려 하는 데 따른 보완책)(2020. 11. 3)

## ○ 일본

- 2019년 기존 금융상품을 다루기 위해 금융상품거래법과 결제서비스법을 개정, 디지털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취급, 파생상품 거래도 허용
- 일본 금융청 ‘금융행정방침(金融行政方針)’에서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을 언급, 디지털자산 관련 리스크 대응 수준을 강화하고 글로벌 규제 수립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 발표(2020. 9. 2)
- 일본의 새 총리 스가 요시히데는 관방장관이었던 2014년 3월, 비트코인에 대해 ‘화폐가 아닌 재화’라고 강조하며 일본 내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주도< ‘친(親) 디지털자산 계(系)’로 주목>, 취임 직후 SBI홀딩스(일본 대형 금융회사)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카타오 회장’을 경제 고문으로 임명(2020. 9. 17)

## ○ 싱가포르

- 2019년 ‘지불서비스법(PAS)’으로 디지털자산 제도권 편입(각종 지불 서비스 또는페이 등을 관장하는 법, 전자화폐, 전자지갑, 온라인결제, 통화교환, 암호화폐 거래소 등), 블록체인 기업이 지불형 또는 유틸리티형 토큰을 발행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규제를 적용 받게됨

- 싱가포르 최대 은행(운용자산 기준 동남아 최대 은행)인 싱가포르개발은행(DBS)이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을 준비 중, 암호화폐 거래소 'DBS 디지털익스체인지(DBS Digital Exchange)'를 출시할 계획(기준 자산 규모는 5800억 달러), 은행은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경제의 미래로 보고 암호화폐 거래 사업에 뛰어듬, 해당 사업은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2020. 10. 27)
- **(말레이시아) 거래소공개(IEO)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신규 규제를 정식 도입**, 증권위원회(SC)는 2020년 1월 처음으로 해당 지침을 공개, 지침은 거래소공개(IEO)와 디지털 자산 수탁기관(DAC)에 대한 규제 방안에 중점, 새 규제 지침은 일부 개정 작업을 거쳐 2020년 10월 28일부터 효력 발생, ICO가 전면 금지된 말레이시아에서 기업들은 당국에 등록된 허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만 토큰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 가능<조달 가능한 최대 금액은 2,450만 달러(283억원)>
- **유럽연합**
  - **(암호화폐 입법 우선 고려사항)**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암호화폐 규제 범위, 암호화폐 주제 및 정의, 발행업체 조건,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 조건, 시장 무결성 보장을 위한 법률, 암호화폐사업자 권한 및 규제 등의 주제로 구분(2020. 8. 19)
  - **(MiCA 제안서)** 9월말 발표하려 했던 '암호화자산 시장(MiCA)에 관한 유럽의회 및 협의회의 규제 제안서' 초안 유출,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일괄적인 규제 접근 방식을 제안하며 디지털자산으로부터 생기는 새로운 위험을 고려하면서도 그로부터 창출되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EU는 2024년까지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으로 완전히 도입시켜 스테이블코인(실물화폐와 연동해 가치 변동이 거의 없는 코인)을 이용한 결제 등을 활용하겠다는 방침까지 세운 것으로 전해짐(2020. 9. 16, 9. 18, 로이터 보도)
  - **(디지털 금융 및 디지털자산에 대한 보고서)** 유럽연합(EU) 입법기관인 유럽의회가 산하 조사국을 통해 '디지털 금융 및 디지털자산에 대한 시장 보고서' 발표, 포괄적인 규제안 마련 필요성 다시한번 강조,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유럽의회와 유럽위원회 규제 감독의 과제'라는 디지털자산의 역할과 규제 상의 과제에 대해 정리(디지털 금융 전환의 불가피성 강조, 디지털 자산 유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사이버 보안과 포괄적인 데이터 전략 확립 과제 제시 등)(2020. 9. 21)



- (디지털금융 패키지 플랜 채택,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 도입)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디지털금융 패키지 플랜을 채택(암호화 자산에 대한 당국의 첫 입법 사례) 및 2022년까지 유럽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발표(2020. 9. 24)
- o (영국) 영국 금융당국이 2021년 1월(금지법안 2021년 1월 6일부터 발효) 개인 투자자에게 암호화폐 파생상품 판매 전면 금지<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의 최종방침 발표>(2020. 10. 6)
- o (독일) 4차 EU 자금세탁방지 지침을 은행법에 적용하면서 암호화폐 수탁업을 제도권 안으로 추가(2019. 12)
- o 러시아
  - 러시아 재무부가 디지털금융자산법(DFA) 개정안을 발의, 이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채굴은 허용되지만 거래는 금지하는 내용, 러시아 하원 격인 국가 두마는 DFA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디지털자산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해당 법안에는 디지털자산 거래는 허용되나 결제는 불가능하다는 내용(2021년 1월 1일 발효 예정)>, 재무부의 새로운 개정안 발의로 현지 암호화폐 업계에 혼란 초래(2020. 7)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종 서명으로 러시아 최초의 암호화폐 관련 법인 DFA가 수립됐다. DFA법은 러시아 내 암호화폐 보유와 거래를 합법적인 활동으로 인정하고, 디지털 증권 발행 가능성 발현,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2020. 8)
  - 러시아 재무부가 암호화폐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 준비 중<새로운 암호화폐 규제법 초안 마련, 법안은 연간 10만 루블(약 1300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취득한 기관이나 개인은 세무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2020. 9. 24)
  - 러시아 최대 국유 은행인 스베르뱅크(9600만 고객 보유) 자체 암호화폐를 준비 중, 러시아 스베르뱅크가 자체 토큰 '스베르코인(Sbercoin)'를 발행할 계획,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채택에 적극적, 2021년 1월 1일 디지털금융자산(DFA) 법이 정식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러시아 내 대형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부문에 뛰어들 채비(2020. 11. 30)

- 러시아 하원의회의인 국가두마(State Duma)는 전자결제와 암호화폐 결제를 분리해 별도의 개념으로 다루기 위한 새 법안을 준비 중, 러시아 디지털 결제 산업을 합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 법안이 통과되면 법정화폐 기반 디지털 결제는 익명 거래 가능(2020. 12. 18)
- (스위스) 스위스 의회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을 인정하는 새로운 금융 및 기업법 개정안 통과(2021년 초 시행 예정) 및 암호화폐 산업 중심지 추그(Zug) 지역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이용한 세금 납부 허용(2020. 9. 10)
  - (의회 통과 법안 내용) 디지털 증권을 교환하는 법적 절차, 파산한 기업으로부터 디지털 자산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추가로 규정
  - (추그, 세금 납부 내용) 2021년부터 암호화폐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선택권 부여, 우선 10만 스위스프랑(약 1억3000만원)까지만 암호화폐 세금 납부 가능
-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디지털 자산’을 유형별로 분류, 증권·투자 상품 성격을 가진 경우 정식으로 규제 시행 발표, SEC는 디지털 자산을 암호화 자산,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토큰, 관련 파생상품·합동운영펀드 4개 유형으로 분류(2020. 9. 14)
- (베네수엘라) 정부가 암호화폐 채굴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 정식 시행(해당 규제 법은 암호화폐 채굴을 합법화 하는 한편, 암호화폐 채굴 행위 자체를 중양화 시켜 통제하려는 움직임 내포, 암호화폐 채굴자에서 세금 징수, 자금을 동결 시키는 결제를 지연 시키는 등 통제권 행사)(2020. 9. 21)
- 인 도
  - 2018년 시행한 ‘암호화폐 거래 금지령’이 2020년 3월 위헌 판결을 받았음(이유 : 거래 금지 법적근거 無)에도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전면 금지’ 법의 도입 계획 발표, 정부는 토지 기록물, 의약품 공급망 또는 교육인증서 기록을 관리 위해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면서도 디지털자산 거래는 반대할 것으로 전망(2020. 8. 4)
  - 인도 주요 은행인 ‘유나이티드 멀티스테이트 크레딧’이 암호화폐 매입 및 대출 서비스 시행, 은행 서비스를 암호화폐 및 관련 상품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 해당 서비스를 위해 은행은 암호화폐 업체 카샤(Cashaa)와 합작회사 ‘유니카스(UNICAS)’를 설립(2020. 10. 27)



- (베트남) 베트남 중앙은행인 주베트남은행(SBV)은 베트남에서 암호화폐를 합법적으로 입찰하고 지불하는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응이엠 탐 손’ SBV 지불부서 책임자가 밝힘(2020. 9. 22, 기자간담회)

## □ 국 내

- (한국) 우리나라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개정된 ‘특금법령’ 이 2021년 3월 시행, ‘2020년 세법 개정안’ 의 국회 본회의 통과(2020. 12. 2)로 2022년 1월 1일부터 세금 부과

## 5 국내 · 외 기업, 금융기관 및 투자자 동향

### □ 국외 기업 및 금융기관

#### ○ 페이스북, ‘디엠’

##### - ‘디엠(Diem)’ 출시 발표(2019. 6)

- ▶ 은행계좌가 없이도 누구나 자사 메신저와 왓츠앱 등을 통해 ‘디엠’으로 물건을 사고 돈을 송금할 수 있도록 출시 발표
- ▶ 달러뿐만 아니라 유로화, 엔화 등 다양한 화폐로 구성된 통화바스켓과 연동하겠다는 계획, 이를 위해 ‘디엠 연합’에는 우버와 비자, 페이팔, 마스터 등 글로벌 금융 기업 20여개사 참여할 계획

##### - ‘디엠 협회(Diem Association)’ 출범(2019. 10)

- ▶ 미국, 독일, 프랑스 등 각국 금융 당국은 ‘디엠’이 통화의 사유화 및 기존 통화체계를 혼란케 하고 마약과 탈세 등 불법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규제할 방침 발표
- ▶ 미국 온라인 결제업체 페이팔의 이탈을 시작으로 비자, 마스터카드, 스트라이프, 메가르도 파고 등 ‘디엠 연합’ 참여를 검토했던 대규모 결제업체 및 이베이, 부킹닷컴과 같은 대형 온라인 상거래 사업자도 함께 탈퇴

##### - ‘디엠(Diem)’ 2.0 공개(2020. 4)

- ▶ 범용성을 높이는 작업과 함께 2020년 내 단일 법정화폐에 기반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예정
- ▶ 사업노선의 ‘글로벌 단일 통화’에서 ‘결제 플랫폼’으로 변경, 궁극적으로 페이스북을 비롯한 산하 앱에서 은행계좌가 없는 사람도 모바일 기기를 통해 간편하게 디지털 금융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

##### - ‘노비(Novi)’ 디지털 월렛 출시(2020. 5)

- ▶ 전략 수정과 함께 ‘노비(Novi)’ 디지털 월렛 출시, 법정화폐를 ‘디엠’ 네트워크 내에서 유통되는 디지털화폐로 전환하고 송금 할 수 있게 하는 기능 지원 예정

- ▶ 디엠 협회는 미국 재무부에서 테러·금융정보수사부문 차관을 지낸 스투어트 레비(Stuart A. Levey) 前 재무부 차관을 최고 책임자로 영입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스테이블코인 기준 적용 추진(2020. 7)
  -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3차 총회에서 ‘디엠’과 같은 스테이블코인에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금지 기준 적용 개정안 추진
- 페이스북 ‘디엠’ 활용 서비스 확대 위한 준비(2020. 7)
  - ▶ 왓츠앱, 인스타그램, 메신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브라질에서 송금과 결제 기능을 지원하는 ‘왓츠앱 페이’ 출시, 향후 멕시코·인도네시아·인도 등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해당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
- 페이스북 ‘디지털 결제 전담팀’ 출범(2020. 8)
  - ▶ 페이스북 파이낸셜(Facebook Financial, 이하 F2) 디지털 결제 전담팀 출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 주주총회에서 ‘디엠’을 페이스북 안의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 발표, 페이스북 안에서 결제 기능을 하나로 모아 연결하고 결제 수단으로 ‘디엠’ 활용)
- 주요 7개국(G7) ‘디엠’ 출시 공식 반대(2020. 10)
  - ▶ 주요 7개국(G7)\* 금융당국자들이 페이스북의 스테이블코인 ‘디엠’ 출시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 서비스 시작 불가 방침

\* G7 : World Economic Conference of the 7 Western Industrial Countries, Group of 7, ‘주요 7개국 모임’으로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선진 7개 국가를 지칭
- ‘리브라’, ‘디엠’으로 개명(2020. 12)
  - ▶ 디엠(Diem)은 ‘새로운 날’이라는 함축적 의미(라틴어로 데이(day)를 뜻함), 로이터 통신은 페이스북이 본 프로젝트가 독립적으로 추진되는 것임을 강조해 규제 당국의 승인을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
- G7, 디지털 화폐 규제 마련(2020. 12)
  - ▶ 주요 7개국(G7)이 디지털화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재차 확인, G7은 민간 디지털화폐가 기존 금융시스템을 훼손하고,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현, 올라프 솔츠 독일 재무장관은 이날 G7 회의 후 성명을 통해 ‘디엠’에 대해 전세계 금융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며 경계

- IMF, 디엠 등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준비 통화 가능 전망(2020. 12. 17)

- ▶ 국제통화기금(IMF)이 '진화하는 국제 통화 시스템 속 준비통화(Reserve Currencies in an Evolving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라는 보고서'를 통해 디엠(Diem) 같은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준비통화로 부상할 수 있다고 전망

\* IMF, '진화하는 국제 통화 시스템 속 준비통화(Reserve Currencies in an Evolving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라는 보고서 : 현 시점에서는 미국 달러의 지위가 안전하다고 결론, 향후에는 민간 디지털화폐가 중요한 국제 통화로 부상할 수 있다고 진단, 그 첫번째 사례로 페이스북의 '디엠'을 언급, 또한 준비통화가 될 수 있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한 개 이상일 수 있다고 전망

## ○ (마이크로스트레티지) - 12억달러 규모의 회사

- 나스닥 상장사이자 엔터프라이즈 분석 및 모바일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스트레티지(MicroStrategy)의 마이클 세일러(Michael J. Saylor) CEO가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2만 1,454 BTC를 매수(2020. 8. 11)

\* 최고경영자(CEO) 마이클 세일러 명의의 보도자료에서 “이번 구매는 비트코인이 세계에서 가장 널리 채택된 가치저장소이자 매력적 투자라는 우리의 믿음을 반영한다. 현금 보유보다 장기적인 가치상승의 잠재력 있는 자산이 비트코인”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구매는 암호화폐 거래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음

- 1만 6,796 BTC를 추가 매입(2020. 9), 해당 업체가 매입한 BTC 규모는 3만 8,250 BTC(4억 2,500만 달러)

## ○ JP모건

- 디지털자산에 대해 사기성 및 거래 불가 입장(2017. 9)에서 비트코인이 전고점인 2만달러에 안착하자 후회(2017. 12), 디지털자산 시장에 진출(미국 거대은행 최초로 실생활에서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JPM코인' 발표) (2019. 2), 'JPM코인' 이 프로토타입(시제품, 견본품)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확장성과 경쟁력 한계 및 시장 변화로 인해 상용화가 지지부진한 상태(2020. 8)

\* JPM코인 개발을 이끈 핵심 개발자로 알려진 윌리엄 마르티노 카데나 CEO는 "JPM코인의 기술적 한계와 함께 JP모건의 모호한 디지털자산 추진 정책이 JPM코인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 하이퍼렛저 패브릭 등 금융기관을 위한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과 플랫폼 등장, 그리고 CBDC 부상 등 블록체인 시장 환경의 변화가 JPM코인 상용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설명, 2021년 또는 2022년까지 JPM코인이 별다른 발전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

- 2020. 10. 28(해당 주) 부터 자체 스테이블코인 ‘JPM코인’ 상용화 추진 (JPM 코인 개발을 선언한 지 1년 8개월만)(2020. 10. 28)

- ▶ 미국 달러화와 1대 1 비율로 가치가 고정되는 기관 고객용 디지털 화폐인 JPM 코인을 개발, 해당 코인은 기업 간 자금 이체 목적
- ▶ 디지털화폐 전담 사업부 신설(오닉스), 기존 직원 100여명 배치, 우마르 파루크가 경영(JP모건에서 블록체인 팀 지휘)
- ▶ JP모건의 이번 계획은 온라인 결제업체 페이팔이 자사 플랫폼에서 디지털자산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나온 것

\* 타키스 게오르가코폴로스 JP모건 글로벌 도매결제 부문 총괄은 "이번주 한 대형 기술 거래처와 해외 송금 과정에 JPM코인을 처음으로 활용하게 된다" 며, "블록체인과 디지털 화폐를 연구·개발하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이를 비즈니스화할 수 있는 단계로 가고 있다"고 오닉스 신설 배경도 설명

- 금융기관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축 발표, 링크는 국제금융 통신망(SWIFT)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 목적

\* JP모건 산하 블록체인 금융 네트워크 링크의 크리스틴 모이 총 책임자는 "이더리움 포크로 구성된 링크 네트워크에 4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초대해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발표, 언급된 금융기관에는 최상위 대형은행 50개 중 25개가 포함

- 금과 비트코인을 유사하게 보는 밀레니얼 세대의 시각이 비트코인 가격의 장기 상승세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보고서 발표(2020. 10. 23), <3000달러까지 내려갔던 비트코인이 1만5000달러(약 1700만원)을 초과, 2020. 11. 6>

- 제이피모건(JPMorgan)이 블록체인 솔루션을 활용한 실시간 레포(환매조건부채권, 금융회사가 만기일에 금리를 보태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 거래를 완료, 레포 거래는 제이피모건의 브로커딜러와 은행 법인 간에 실시, 이 거래는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제이피엠(JPM) 코인을 캐시레그로 사용하였고 블록체인은 담보물과 캐시레그에 모두 사용(2020. 12. 10)

- (골드만삭스) 디지털 자산에 대해 높은 관심이 있으면서도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에서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에 대해 부정적 시각 발표(2020. 5), 그러나 자체 디지털자산 발행 검토 및 전담부서 확대(기준 은행업무의 가상화폐 시장 활용 차원, 2020. 8),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자체 토큰 발행 검토 공식화(2020. 9)

\* 골드만삭스의 새로운 디지털 자산 책임자 매튜 맥더모트(Matthew McDermott)는 2020년 8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체적인 법정화폐 기반 디지털 토큰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함, 주요 목표는 근본적인 금융 채널의 디지털화, 신용 및 대출 시장에서의 블록체인 활용,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 등이 될 것이라 밝힘. 또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기존의 개인 투자자에서 기관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임

- 미국 디지털커머스연구회(Chamber of Digital Commerce)에 비자와 골드만삭스, 식스디지털익스체인지(SDX)가 본격 합류, 디지털 금융 사업에 본격 나설 채비 관측(디지털커머스연구회 :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반 기술의 수용과 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직, 다양한 분야와 협력해 혁신을 이끌고 일자리 및 투자를 육성하는 환경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2020. 9. 24)
- 스탠다드차타드(영국계 금융기업)
  - 글로벌 금융회사인 스탠다드차타드가 기관투자자 전용 디지털자산 예치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고 발표(2020. 7. 20)
  - 기관 투자자를 위한 디지털자산 거래 플랫폼 구축 계획 발표, 해당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해 5개의 장외거래(OTC) 거래업체, 4개의 거래소로 구성된 전담 조직을 구성, 프로젝트에 '엘맥스(LMAX)'와 '에리스엑스(EriX)'가 참여했으며, 스위스 소재 수탁 서비스 제공업체 '메타코(METACO)', 영국 소재 트레이딩 기술 제공업체 '코발트(Cobalt)'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발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의 결제 토큰은 이더리움 ERC-20 토큰이 사용될 예정(2020. 12. 8)
- (바슬러 칸토날뱅크, BKB) 스위스의 국영 상업은행인 바슬러 칸토날뱅크(BKB)는 자회사인 방클레어(Bank Cler)를 통해 2021년부터 디지털자산 거래와 예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일정을 공개(2020. 8. 4)



○ (스페인 BBVA 은행) - 자본규모 약 8억 4천만 달러, 스페인 은행 중 두 번째 규모

- 스페인 BBVA 은행이 스위스에서 암호화폐 거래 및 커스터디 사업을 준비, BBVA는 약 6개월 전부터 은행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아발로크'와 스위스 암호화폐 전문업체 '메타코'가 구축한 'SILO 수탁 플랫폼'을 통합하는 작업을 시작, 한편, 메타코는 런던에 본사를 둔 스탠다드차타드와도 기관급 솔루션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 우선 스위스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시작한 뒤 유럽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BBVA는 산탄데르 은행과 함께 유럽 연합 내 블록체인 규제 수립과 응용 방안 마련을 위한 EU 국제 협회 'IATBA'에도 참여)(2020. 12. 7)

○ (미국 선물 및 증권 거래소) 미국 시카고선물거래소(CME)가 비트코인 선물거래 상품을 내놓은 뒤로 거래량이 꾸준히 상승(2017), 뉴욕증권거래소(NYSE) 모회사 산하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백트(Bakkt)'도 하루 선물거래량이 1만5995비트코인(약 2046억원)을 기록(2020. 9. 15),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비트코인 선물거래소의 신흥강자로 떠오름

○ SBI홀딩스(일본 대형 금융회사)

- 일본 최초로 디지털자산 펀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2020. 6)(SBI홀딩스가 출시하는 디지털자산 펀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음)

\* 요시타카 키타오 SBI홀딩스 CEO는 "전세계 디지털 금융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펀드를 통해 잠재 수요에 부응하겠다"고 말함

- SIX 산하 디지털자산 플랫폼 'SIX디지털익스체인지(SDX)'는 싱가포르에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출시하기 위해 SBI 산하 디지털애셋홀딩스와 합작회사를 설립한다고 발표, 현지 통화당국의 규제 허가를 받아 2022년 거래소를 출범할 예정(2020. 12. 8)
- SBI홀딩스의 계열사 SBI파이낸셜 서비스가 영국 소재 암호화폐 트레이딩 기업 B2C2를 인수, 디지털 자산 딜링 데스크를 운용하는 최초의 주요 금융그룹이 됐다고 발표(2020. 12. 15)



○ (비자, VISA) 글로벌 신용카드 기업, 디지털 화폐와 디지털자산 분야 사업 확장(2020. 9. 24)

- 코인베이스 등 디지털자산 기업과 제휴, 비자 카드를 발행하거나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사업 진출과 상점 등 오프라인 결제 지원 진행,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 결제 지원(5월 CBDC 발행 시스템 특허 출원) 등 디지털자산 분야에 대해 폭넓은 활동
- 현재 비자가 지원하는 디지털화폐 지갑은 약 25종(디지털자산 거래를 직접 진행하지 않지만 디지털화폐 지갑을 지원하는 각종 결제 사업에는 적극적 행보)
- 바이낸스 역시 지난 7월 유럽 시장에서 비자 직불카드 '바이낸스 카드' 출시 (바이낸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점진적인 영업 활동을 진행 중, 거래소와 제휴된 비자 카드를 이용하면 디지털자산 구입 시 현지 국가 법정화폐를 이용하지 않아도 카드 결제만으로 비트코인, 바이낸스코인 등 수종의 디지털자산 구입 가능)

\* 비자 블록체인 및 디지털 화폐 담당자인 테리 안젤로스는 "비자의 목표는 블록체인 분야의 스윙프트(SWIFT)가 되는 것"이라며 "디지털자산 거래는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결제는 비자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밝혔다.

- 미국 디지털커머스연구회(Chamber of Digital Commerce)에 비자와 골드만 삭스, 식스디지털익스체인지(SDX)가 본격 합류, 디지털 금융 사업에 본격 나설 채비 관측(2020. 9. 24)
- 미국 달러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 (서클사와 코인베이스가 협업해 만든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 비자는 USDC 발행사 서클(Circle Internet Financial)과 협력해 이르면 내년부터 전 세계 6000만개 비자 가맹점에서 USDC 결제를 지원할 방침, 방식은 비자 카드 발급자가 개발된 USDC 결제 플랫폼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식, 나아가 USDC를 직접 주고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도 만든다는 계획(2020. 12. 2)
- 런던 소재 암호화폐 카드사 와이렉스(WireX)를 유럽권 내 주요 회원사(Principal member)로 선정, 암호화폐 기업 중에서 비자가 주요 회원사로 삼은 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이어 두 번째, 비자는페이팔이나 스쿼어처럼 자체 암호화폐 서비스를 내놓는 대신, 파트너십을 통한 우회적 방법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공략(2020. 12. 22)

- (찰스 슈왓, 피델리티, 뱅가드) 찰스 슈왓(Charles Schwab), 피델리티(Fidelity Investments), 뱅가드(Vanguard) 등 미국 3대 자산운용사들이 다양한 경로로 암호화폐 채굴 관련 주요 블록체인 기업들의 주식을 매입하고 있는 중 (2020. 10. 5)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금융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1위 온라인 증권사인 찰스 슈왓은 나스닥 상장 암호화폐 채굴기업인 라이엇 블록체인(Riot Blockchain)의 주식을 상당 부분 매입한 상태로 확인, 피델리티와 뱅가드 역시 앞서 라이엇, 하이브 블록체인 테크놀로지(Hive Blockchain Technology Ltd), 허트8(Hut 8) 등 채굴 관련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늘린바 있음(2020. 10. 5)
- (페이팔) 약 3억 5천만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보유한 세계 최대 온라인 결제 기업인 페이팔(PayPal)이 2021년부터 비트코인등 디지털자산(암호화폐)의 거래 및 결제를 허용, 커스티 업체인 빗고(Bitgo, 골드만삭스의 투자 받음) 인수 추진 중(2020. 10. 21)
  - 앞서 미국의 스쿼어, 마이크로스트래티지(Microstrategy), 영국의 모드글로벌 (Mode Global) 등은 고유자산의 일정부분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소식을 발표
  - 더 이상 투기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사업에 박차
  - 현재 1만 달러(약 1130만원)로 한정된 주간단위 디지털자산 구매한도를 1만 5000 달러(약 17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또 각국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를 서비스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2020. 11. 4)
  -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미즈호 시큐리티즈 USA의 보고서를 인용 사용자의 20%가 암호화폐 거래에 페이팔 서비스를 사용했다고 발표, 페이팔 이용자의 65%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과 같은 암호화폐로 결제할 준비가 된 것으로 나타남, 이들은 2800만개의 가맹점에서 비트코인을 화폐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발표, 이들 중 17%는 이미 비트코인을 사고팔기 위해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 또한 페이팔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이용한 사용자의 절반은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이후 페이팔 앱 사용이 증가했다고 전함(보고서는 380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2020. 12. 1)

- **(피델리티디지털에셋)** 세계 5대 자산운용사 피델리티인베스트먼트의 자회사인 피델리티디지털에셋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BTC)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 중(2019. 3. 7), 최근 싱가포르 소재 스타트업 스택펀드(Stack Fund)와 손잡고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아시아에서도 제공(2020. 10. 29)
- **(쟁글)** 공시데이터 기반 디지털자산(암호화폐) 정보포털 쟁글이 영국에 기반을 둔 디지털자산 거래소 비퀀트(Bequant, 디지털자산 거래소 운영 외에도 디지털자산 프라임브로커리지(PBS·헤지펀드 전담중개업), 커스터디(예치), 펀드 관리 등의 서비스를 기관투자자들에게 제공)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 쟁글은 이번 비퀀트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향후 유럽권 기관투자자들에게 디지털 자산 투자 정보를 제공할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2020. 10. 29)
- **(번스타인)** 세계적인 자산운용사인 얼라이언스 번스타인(Alliance Bernstein)\*이 비트코인이 고객의 투자자산 포트폴리오 역할을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 얼라이언스 번스타인 연구센터 포트폴리오 전략팀장 ‘이니고 프레이저-젠킨스(Inigo Fraser-Jenkins)\*\*’는 비트코인이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이전의 주장(2018)을 변경(2020. 12. 1)
  - \* 얼라이언스 번스타인은 관리 자산이 6100억 달러(672조 원)에 달하는 선도적인 글로벌 투자 관리 및 리서치 회사
  - \*\* 프레이저 젠킨스는 포트폴리오 전략팀의 공동 책임자로 2015년 번스타인 합류 전 노무라 증권에서 글로벌 전략팀장을 역임한 전문가

## □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

- **(네이버)** 네이버 ‘라인’이 메신저 라인과 야후재팬 사용자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암호화폐) ‘링크(LN)’로 라인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성
  - 자체 블록체인 ‘링크체인’과 암호화폐 ‘링크’를 공개(2018. 8), 일본에서 자체 암호화폐 ‘링크’와 직접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의 사업 허가 획득(2019. 9), 링크의 유통 허가(2020. 1) 메인넷 업그레이드에 맞춰 비트맥스에 ‘링크’ 상장(2020. 8)
  - 라인 블록체인 위에서 쉽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개발플랫폼 ‘라인 블록체인 디벨로퍼스’, 라인 메신저와 연동되는 디지털 자산 지갑 ‘비트맥스 월렛’ 출시(2020. 8)

- 라인이 일본에서 2020년 10월 7일부터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를 시작, <라인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맥스(BITMAX)는 6일 이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2020. 10. 6)
- 일부 아시아국가와 협력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을 추진 중 <어떤 국가의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디지털화폐의 발행과 유통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나 관련 기술로 라인 블록체인(Line Blockchain)이 공급될 수 있다는 뜻> (2020. 10. 19)
- o (카카오톡) 카카오는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의 '클레이튼'에 LG전자, SK네트웍스, GS홈쇼핑, 위메이드 등 국내 기업들과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생태계 확장
  - 그라운드X는 자체 블록체인 '클레이튼'과 암호화폐 '클레이'를 출시 (2019. 6), 카카오톡과 연동되는 디지털지갑 서비스 '클립'을 출시(2020. 6), 국내 블록체인 서비스 대중화의 신호탄
  - '블록체인 대중화'에 주안점을 두고 NFT(대체불가능토큰, Non-Fungible Token,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고유의 것을 블록체인상에서 자산화 시키는 것) 사업에 박차, 이를 위해 회사는 그간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과 카카오톡으로 접근 가능한 디지털 자산 지갑 '클립',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블록체인 '카스(KAS)'를 출시하며 자체 블록체인 생태계 생성(2020. 9)
  - 50조원 규모의 기업가치를 자랑하는 미국의 전자결제 1위 기업 '월드페이'와 1억명이 넘는 동남아시아 사용자를 보유한 메신저 앱 잘로(Zalo)의 운영사 'VNG' 등 굵직한 기업들이 클레이튼의 공동 운영사로 합류(2020. 10. 18)
  - 카카오게임즈 블록체인 기반 게임 콘텐츠 서비스업체인 웨이투빗(콘텐츠 블록체인 플랫폼인 '보라에코시스템(BORA Ecosystem)'의 개발사)을 인수, 게임이나 플랫폼 내에서 화폐처럼 쓸 수 있는 '토큰'을 활용해 플랫폼이 공급하는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판매 가능, 이 토큰을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또 다른 토큰과 교환해 현금으로 출금하는 것도 가능, 카카오게임즈는 게임 플랫폼 사업을 블록체인 영역으로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2020. 12. 17)

## ○ 국민은행

- 단순 수탁외 자산운용 기능까지 포함한 커스터디 서비스를 내놓을 전망 (2020. 9. 23)
- 디지털 자산 관리 기업 한국디지털에셋(KODA, 국민은행과 블록체인기업 해치랩스,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가 공동 설립한 회사)에 전략적 투자(2020. 11. 26), 가상화폐 등 디지털자산 수탁서비스 준비 중

## ○ 신한은행

- (커스디드, 수탁사업)
  - ▶ 현재 파일럿 테스트 중, 디지털 자산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고객이 보유한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모바일 금고 서비스 준비 중(2020. 9. 23)
  - ▶ 디지털자산 거래소 코빗과 디지털자산 수탁서비스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을 논의(설립 여부, 지분 규모, 업무 범위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것 無, 코빗 관계자도 신한은행과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관련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해 검토 중)(2020. 10. 30)
  - ▶ 디지털 R&D 센터 내 블록체인랩에서 타 업체와 제휴, 디지털 자산 보관 기술, 개인키(열쇠) 기술검증 완료(2020. 11. 26)
- (디파이, 탈중앙화금융) 은행 관점의 디파이는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금융서비스간 접점, 은행에서도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생각하고 준비 중 (2020. 9. 23)

## ○ 농협은행

- 법무법인 태평양, 헤슬란트와 업무 협약, 디지털 자산보관, 블록체인 보관 등 비즈니스모델 연구 중(2020. 11. 26)

## ○ 하나은행

- 한국은행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사업 인프라 구축(2020. 11. 26)

## ○ 우리은행

- 인공지능(AI) 사업부에서 관련 기술 검증, 우리펀드서비스 등 자회사에서 관련 사업 준비(2020. 11. 26)



## □ 해외 투자자

- (워렌 버핏 BTC 투자 전망) BTC(비트코인) 흑평가로 유명한 전설적인 투자전문가 워렌 버핏이 조만간 BTC에 투자할 것이란 전망

\* 미국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모건크릭디지털애셋(Morgan Creek Digital Assets) 공동 창업자 제이슨 윌리엄스(Jason A. Williams)가 최근 인터뷰에서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조만간 비트코인 투자할 계획”임을 말함

- 워렌 버핏은 비트코인을 ‘신기루’, ‘잠재적 가치가 장난 수준’으로 평가(2014)하였고 디지털자산의 부정적인 결말을 예견(2018)하였으나 2년(2020)만에 긍정적 입장으로 선회

### ○ 폴 튜더 존스 BTC 투자 전망

-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폴 튜더 존스<튜더인베스트먼트(Tudor Investment) 설립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금은 소모성 자산으로 변했으며 최소 2%에 가까운 보유 자산을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힘(2020. 5)
- 본인 트위터를 통해 과거에 있었던 달러 가치하락에 대한 대비책으로 비트코인 투자 결정, 비트코인 투자 결정에 있어 유일한 후회는 더 많은 물량을 구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힘(2020. 8)

### ○ 케빈 오리어리, 캐나다 사업가

- 미국의 유명 TV쇼 샹크탱크에 출연 중인 캐나다 사업가 케빈 오리어리(Kevin O'Leary), 비트코인(BTC)이 규제당국의 인정을 받는다면 투자 비중을 20%까지 늘릴 것이라고 발표, 2019년 암호화폐는 세금 납부도 불가능하고 규제도 거의 없는 불량통화라고 지적한 것에서 입장 선회(2020. 12. 1)

## □ 국제금융시장 기관투자자

- (기관투자자 암호화폐 투자 확대) 국제금융시장을 주도하는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관련, 중장기적으로 낙관적인 전망과 가격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매수기회로 활용할 전략인 것으로 파악<2020. 9. 23, 암호화폐 보험회사 에버타스(Evertas) 설문결과>, 전세계 주요 기관투자자는 비트코인 가격의 단기 하락에 관계없이 비트코인 할당을 늘릴 계획(국제금융시장 기관투자자 4분의 1 응답)

- (조사 대상) 미국과 영국에서 78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50명의 기관투자자
- (설문 결과) 참가자의 26%가 연금기금, 보험사, 국부펀드가 암호화폐에 대한 지분을 올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응답, 응답자의 64%는 헤지펀드(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자산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 목표 수익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가 암호화폐 투자에 적극적일 것이라고 응답(이 가운데 32%는 실제로 조만간 암호화폐 보유량을 크게 늘릴 것이라고 예상)
- 기관투자자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가 향후 개선되고 명확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관련 투자에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 시장이 결국 더 커져서 대부분의 기관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유동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

\* 에버타스의 그단스키 최고경영자(CEO)는 “우리 분석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및 암호화 자산에 대한 노출을 늘리는데 열정적이지만 이러한 시장을 지원하는 인프라와 관련하여 여전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암호화 자산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투자 잠재력을 모두 실현하려면 이러한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함

## □ CB인사이트, 디지털자산 분야 신설

- o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CB인사이트가 발표한 '핀테크 250 : 2020년 최고의 핀테크 기업들(이하 핀테크 250)' 보고서에 디지털자산 분야 신설(CB인사이트는 2017년부터 매 해 전세계 경쟁력 있는 핀테크 기업 250개를 뽑아 소개, 디지털자산 카테고리가 만들어진 것은 올해가 처음), 2020년 핀테크 250은 전체 1만6000개 핀테크 기업 중 성장 잠재력과 재무 건전성, 사업모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주요 디지털자산 핀테크 기업으로 선정한 7개사 :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블록파이, 블록체인닷컴, 렛저, 스폭스, 심비온트 등, 디지털자산 거래소부터 대출, 커스터디(예치), 지갑, 증권 등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 기업포진>(2020. 9. 27)